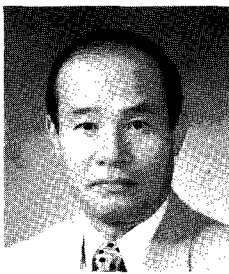


## 가금위생 해외뉴스

### 오경록 ◀코너



오 경 록  
남덕 씨니테크

#### □ 유기인제에 의한 계사내 파리 방제법

사이다마현 양계 시험장 사양관리부에서는 산란계 케이지 계사에서 발생하는 파리를 방제하기 위하여 계사내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는 독먹이 테이프를 개발하여 많은 파리 성충을 살충하는 연구를 하였다. 실험에 의하면 독먹이 테이프는 농업용 자재인 방수용 발두렁 덮개(일종의 비닐씨트)를 10cm폭으로 잘라 테이프 표면에 도포용 시판 살충제(유기인제 아자메치호스, 약효 잔류기간 약 1개월)를 도포하고 케이지 바닥 전면 또는 아래의 케이지 받침대 등에 길게 부착하였다.

한편 도포한 살충제는 건조하면 살충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소형 분무기로 파리 성충의 기호물을 분무하였다. 다음에는 성충의 기호물의 효과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실험결과 폭 10cm 길이 18m의 테이프 1개의 살충효과는 1일당 사망된 파리가 2,540마리에서 3,310마리로 매우 많아 테이프 아래에 죽은 파리가 가깝게 깔려 있었다. 또한 테이프의 건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조로 지하수를 분무하였다. 지하수를 분무하여 가습한 살충제 도포 테이프는 1일당 죽은 파리수가 100이라고 하면 기호물을 분무하여 가습한 테이프는 126부터 330으로 증가하였다. 이 방법은 생산물인 계란에 살충제가 부착하고 산란계에게 살충제의 영향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 안전면에서 효과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간단하게 기호물의 분무 등 적절한 유지관리로서 단기간에 많은 파리를 구제할 수 있으며 경제성은 케이지 사육에서 6개월간 조사로 1수당 10엔 정도의 경비가 소요되었다.(NK, '98. 7)

#### □ 만나올리고당의 살모넬라균 억제 효과

살모넬라 엔트리티디스(SE)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료에 0.25%의 만나올리고당을 첨가하여 SE의 감염억제 효과를 조사하였다. SE에 대해서 감수성이 높은 강제환우계를 시험에 사용하였으며 SE균  $3.4 \times 10^6$  CFU/ml를 경구 투여하여 시험한 결과 계란에 대해서는 감염대조구의 난각표면에서 감염후 21일동안 평균 34.5%로 SE가 분리되었고 첨가구는 12.5%가 분리되었다.

또한 감염대조구에서는 난백의 1/58(1.7%) 난황의 4/58(6.9%)에서 SE가 검출되었으나 첨가구에서는 감염후 11일 이후 난백 및 난황에서 SE가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내부 장기에서는 감염대조구의 부검한 전체 가검물의 간에서 SE가 검출되었으며 10수 중 5수의 난소에서 SE가 검출되었다. 한편 첨가구에서는 10수 중 4수의 간에서 SE가 검출되었으나 난소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만나올리고당의 사료첨가는 소화관으로부터 SE균을 조기에 배출하고 닭의 SE균 감염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이 인정되었다.(JSPD. Vol 33.4)

#### □ 사료중의 살모넬라균 감소

양계사료중의 살모넬라 엔트리티디스(SE)균의 가열처리 시간의 증가가 사료중의 생존가능한 많은 수의 미생물이 감소하는 것은 알고 있는 사실이다.

가열시간, 온도, 습도에 따라 SE와 2종류의 살모넬라균의 치사 온도를 알아보기 위해 시험 사료를 채취하여 건조후에 정해진 수분을 다시 가습하고 살모넬라균을 투입하고 난 다음 가열처리 하였다.

가열된 사료는 일정시간별로 채취하여 살모넬라균을 검출하여 살모넬라균의 치사율을 파악하였다.

시험결과 15% 수분함유 사료에서 생존할 수 있는 살모넬라균이 10,000배 감소할 수 있는 가열처리는 93℃에서 90초간이었다. 이러한 가열처리는 어린 병아리에 안전한 사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PD. '98. 3)

#### □ 도체의 식중독균 검사결과

이이지현 수의사회 도계검사 센터의 이시하라등은 도계검사에서 대장균증으로 진단된 육계와 성계에 대해서 세균학적검사를 실시하여 도계검사에 의한 식중독균의 예방실태와 분리된 세균에 대하여 약제 내성을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95년 5월부터 4개월간으로 육계(4개 도계장)는 163만 5,977수 중 3,469수(0.21%)가 대장균증으로 진단되었고 그중 239수에서 검사재료를 채취하였다.

성계는(3개 도계장) 127만7,378수(0.017%)에서 대장균증으로 진단되었고 그중 42수에서 검사 재료를 채취하였다. 대장균은 239수 중 141수(59%)의 육계에서 분리되었다. 이 가운데 14수(5.9%)에서 분리된 대장균의 혈청형이 판명되었으나 병원성대장균은 없었다.

이들 혈청형의 분리 빈도는 과거 닭에서 분리된 대장균의 혈청형에 관한 보고와는 현저하게 다르게 나타났으며 성계는 42수 중 11수(26.8%)에서 대장균이 분리되었으나 혈청형은 조사하지 않았다.

살모넬라균은 육계에서는 37수(15.5%) 성계에서는 2수(4.2%)가 분리되었고 그 혈청형은 8종으로 1995년에 전국의 사람에서 분리된 혈청형 빈도와 일치하였다.

에어로모나스형세균은 육계의 239수 중 169수(71%)가 분리되었고 이 가운데 70수(29.3%)에서 분리된 균이 에어로모나스균으로 분리 동정되었다. 약제내성은 대장균이 15종류 약제중 5개, 살모넬라균은 4개, 에어로모나스균은 3개로서 내성균이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4가지 약제에 내성을 획득하고 있었다.(NK. '98. 6)